

시리아 대통령 바샤르 아사드(Bashar Al Assad)가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인 증거

아사드는 다니엘 11:40 구절을 이루고 있다: “마지막 때에 남방 왕이 그를 찌르리니 북방 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리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 와서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물이 넘침 같이 지나갈 것이요”. 시리아는 나라 사방에서 전쟁에 처해있다. 곧 북태평양조약기구(NATO)와 미국이 아사드를 공격하여 그의 권력을 없애려고 할 것인데 이것이 요한계시록 13:3 구절에서 언급한 ‘죽게되었다는 상처’를 말한다. 그러나 아사드는 적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미국과 NATO 군대가 그의 권력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아사드는 안과의사다. 다니엘 7:20 구절에 적그리스도는 작은 뿔에 눈이 있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눈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될 수 있다. 소위 “모든 것을 보는 눈” (혹은 하나의 눈)이라 불리는 것은 안과의사를 나타내는 로고일뿐만 아니라 적그리스도, 프리메이슨(freemasonry), 새로운 세계 질서(the new world order)의 로고이기도 하다.

이사야 10장, 미가서 5:1-5 에서 적그리스도를 “(앗)시리아 사람” 이라 부른다. 뿔에 눈이 있다 말하는 다니엘 7:20과 이사야 10:12, 데살로니가후서 2:8, 이사야 11:4, 30장30-31은 모두 직접적으로 (앗)시리아인을 가리킨다.

시리아 대통령 바샤르 아사드의 할아버지는 아랍어로 “집승”이란 뜻을 가진 가족의 성 “Al-Wahash”를 아랍어로 “사자”라는 뜻을 가진 아사드(Assad)로 바꿨다. 만약 당신이 아랍어로된 요한계시록을 읽을 수 있다면 아사드의 원래 가족 성(family name)과 아사드의 현재 성(current last name)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적그리스도는 러시아와 이란의 군사지원을 받게된다. 아사드는 에스겔 38장을 이룰 것이다. 러시아, 중국, 이란은 이제껏 공공연하게 계속해서 아사드를 지원한다고 밝혀왔으며 핵무기를 동반한 제 3차 세계대전까지 지원할 것이다.

다니엘이 본 금으로 된 동상과 발가락에 이르기까지 철과 진흙으로 된 것 등은 모두 정확히 고대 바빌론과 앗시리아 그리고 시리아 지역과 동일한 중동지역에 서있다. 성경은 중동지역 관련 책이기 때문에 적그리스도 역시 미국이나 유럽이 아닌 지중해 근방 지역에서 반드시 출현할 것이다.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은 중동지역의 평화는 반드시 바샤르 아사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얘기했다.

바샤르 아사드는 유대인의 핏줄을 타고 났다고 주장한다. 아사드가 자신을 메시아라고 선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에서와 야곱의 가족인 유대인의 핏줄이라고 선언해야 한다. 적그리스도가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선언하기 위해서, 적그리스도는 반드시 시리아인의 핏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지서스(Jesus)역시 유대인과 시리아인의 핏줄이 섞였기 때문이다. 창세기24:25, 25:20, 28:5, 29:10-35, 신명기 26:5, 창세기 10:21, 창세기 11:10-26, 마태복음 1:1, 창세기 35:22-26

바샤르는 1965년 9월 11일에 태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 911 사태도 그의 생일에 일어났다.

아사드는 세계 이슬람 통치자 가운데 유일하게 지서스(Jesus)는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십자가에서 죽은 사실을 믿는다. 또한 삼위일체와 크리스마스, 부활절 그리고 많은 카톨릭 성일을 믿으며 힌두교나 불교처럼 환생을 믿는다. 아사드는 모든 종교를 통합하여 세상의 유일한 하나의 종교를 만들 수 있다. 그는 자신이 직접 만든 코란을 만들어 모든 이슬람 국가의 왕과 지도자와 대통령 그리고 주요 모스크에 배포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마지막 때에 이슬람 세계의 지도자 곧 “12번째 임ام 마흐디”로서 자신을 드러낼 것이다.

마지막 때 관련한 고대 이슬람 예언에는 이슬람 세계의 지도자인 마흐디(Mahdi)가 시리아를 통치할 것인데 이 때는 중동 전쟁이 시작되어 두개의 다른 이슬람이 서로 싸우고 시리아 통치자인 마흐디를 대적한다고 말한다. 예언에 따르면 시리아-이라크 전쟁은 격렬할 것이며 시리아 통치자는 그를 대적해 싸우는 자들을 이길 것이고, 시리아-이라크 전쟁 가운데 지esus(Jesus)가 하늘에서 내려와 다마스쿠스에 발을 딛고 시리아 통치자를 도울 것이라 기록되어 있다.

이란이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이슬람 세상의 지도자인 마흐디는 이미 존재하지만 적절한 때가 되어 발휘 때까지 자신의 진짜 신분을 숨기고 있다고 한다. 이 주장의 중요한 점은 그 마흐디가 이란의 친구라는 것이다. 이란에게는 러시아 대통령 푸틴과 시리아 대통령 아사드 외에 달리 친구가 없다. 몇몇 무슬림은 이미 아사드를 마흐디라고 선전하기 시작했다.

데이크(Dake)의 주석 성경에는 적그리스도가 시리아에서 나타날 것이라고 각주에 기록되어 있다.

2016년 4월, 이스라엘은 골란고원을 이스라엘의 영원한 영토로 선언했다. 이에 대해 미국, 영연방, 러시아 및 모든 이슬람 국가는 곧바로 이스라엘을 공식 비난하였고 아사드를 지지함을 천명했다. 1967년 때의 골란고원 국경은 마지막 때 주요 접전지역이 될 것이다. 많은 국가가 현재는 아사드를 싫어하지만, 이스라엘과 아사드 중에 선택해야하는 때가 오면 악한 자는 이스라엘이 아닌 아사드를 선택할 것이다.

바샤르 아사드는 시리아에서 하나님으로 숭배받고 있으며, 유튜브 등에서 이에 대한 증거를 쉽게 볼 수 있다. 시리아에서는 아사드를 모든 신보다 더 높은 하나님이라 말하는 것을 거부하면 목베임을 당한다. 짐승의 표와 목베임에 대한 성경말씀을 이루는 것이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Antiochus Epiphanes)는 외경 마카베오서(Maccabees) 시대에 멸망의 가증한 것을 세웠다. 안티오쿠스는 다니엘서에 미리 기록된 인물이며 시리아의 통치자였다. 즉 안티오쿠스는 적그리스도를 미리 알리는 그림자다. 다니엘 11:21-36 구절은 안티오쿠스에 대해 얘기하는 내용이다. 36절과 다른 다니엘서 구절은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지만 다니엘서 나머지 부분과 21-35구절에서 말하는 인물은 차이가 없다. 안티오쿠스와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는 마지막 때 나타날 동일한 타락한 천사다. 요한계시록 17:10 구절은 고대의 왕이었던 그가 돌아온다고 가르치는데, 성경에서 수 차례 예를 보여주듯, 천사는 사람의 모습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 “아사드”라는 이름은 중동에서 천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유대인의 세번째 성전이 이스라엘 성전산에 세워지는 일은 없다. 우리가 보게 될 것은 데살로니가후서 2:1-12절에 기록된 대로 하늘이 말리며 하늘의 하나님의 성전에 아사드가 나타나 하나님의 보좌에 앉는 장면이다. 보좌를 지키던 천사장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잠시 물러나(다니엘 12:1) 아사드가 하나님 인 것처럼 보이게 한다. 지상의 사람들은 각처에서 뛰쳐나와 하늘을 올려다보며 그 장면을 보고 생각하기를 휴거가 일어났다고 믿고 아사드를 경배할 것이다. 아사드가 하늘에서 내려와 다마스쿠스에 내려온 후, 30일 뒤에 시리아와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침략함으로써 3년 반의 대환란이 시작된다. 또한 러시아 중국은 미국을 침략한다. 성경이 명시한 ‘성도의 들림’은 아사드가 하늘에서 나타난지 1260일 뒤에 일어날 것이다. 그후 45일 동안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질 것이다.

이 모든 일에 대해 지esus(Jesus)께 기도해서 알아보고, 영적/육적/감정적/신체적으로 그 날을 대비해야 한다. 해될 때부터 다음 날 해될 때까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을 포함하여 모든 십계명을 지키라. 카톨릭이 만든 “예수”라는 이름이 아닌 그분의 원래 이름 “지esus”(Jesus)의 이름으로 물에 완전히 잠기는 침례를 받아야 한다 (막16:16). 회개하고 거룩한 생활을 하며 기도와 금식으로 성경을 읽으라. 종교를 따르지 말고, 지esus를 따라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www.iSawTheLightMinistries.com 혹은 blog.naver.com/tpad51j 를 참조하길 바란다.